



누가 담배를 피울까?

편집부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흡연인구는 지난 '65년 40%에서 '90년에는 25.5%로 감소하였으며 흡연인구는 4천 6백만명에 달하며, 담배와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하는 수는 2백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흡연이 육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건강에 미치는 비극적 종말이 되고 있는 심각성을 제고하면서 미국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 미국결핵협회 National TB Association의 전신)는 이미 1985년대 이전부터 금연운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당시의 흡연으로 인한 심각성에 대비한 미국폐협회(ALA)의 자료를 재조명해 보고 그때 담배의 위해성을 어떻게 홍보하였는지 4회(이번호가 2회)에 걸쳐 자료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역자 주)

조근수/결핵협회 홍보부장

오늘날 8,000만갑의 담배가 팔리고 있다고 한다. 과연 누가 사서 피울까? 이에 관련하여 흡연인구 통계가 나왔다. 어떤 수치는 고무적이나 어떤 수치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5,400만명의 미국 성인이 흡연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의 거의 1/3에 해당되는 31%에 달하고 있다. 33%의 성인남성이

흡연자이고 이는 1964년도 52%에서 감소된 것이다. 성인여성의 경우 현재 28%가 흡연한다고 한다. 그 수치도 또한 1964년도 34.2%에서 감소되었지만 그 감소폭은 분명히 여성에게서는 덜 극적인 결과였다. 미국 고등학교 상급생의 거의 20%가 흡연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인 12~17세 층에서 15%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흡연



습관을 갖게 된다.

반가운 소식으로는 4,100만명이상의 미국인이 과거에 흡연자였으며, 3명중 1명은 매년 그들의 흡연습관을 버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대로 나쁜 소식으로는 10대들의 많은 청소년들이 매년 흡연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성인흡연자들의 2/3는 그들이 청소년시절에 피워온 흡연습관이 짊어지게 되어 계속해서 피우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흡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덜 배운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학위를 갖춘 사람들이 대학 졸업자들보다 덜 피우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보다는 덜 담배를 피운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보다는 덜 피운다. 일반적으로 사춘기의 흡연자들은 그들의 비흡연자 동급생 보다는 성적이 뒤떨어진 다. 이들은 또한 학교에 다닐때 아르바이

트를 하는 경향이 많다. 그들 흡연자는 편모나 저소득층 가정에서 더 많이 있으며 그들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다.

많은 연구조사결과에서 이와같은 사실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흡연의 건강위해에 관한 정보전달이 더 잘되어 있다는 것을 곧 추정할 수 있다.

흡연하는 10대 여성의 증가

대체적으로 196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10대 여성에게 있어서는 줄지 않고 있다. 1976년 이래 고등학교 상급학년에 있는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거보다 높은 흡연율(현재 20.6%)로 나타났으며 남학생(17.8%)보다도 높았다.

직업에 따라 다르다.

당신이 사무직(흰색 셔스)이라면 노동직(청색 셔스)보다 덜 담배를 피운다. (사무직은 36%이며 노동직은 약47%였음) 그리고 여성의 경우 직장여성이 가정주부보다 흡연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

담배를 피울 것인지 피우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결심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가정환경과 부모의 흡연 모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알게 되면 이미 늦었다.

대체로 65세가 넘으면 담배를 덜 피우게 되는 경향이 있다. 남성에게 있어서 흡연율이 35~54세까지가 가장 높았으며 여성에게 있어서는 20~24세와 35~44세 군에서 높은 흡연율을 보였다.

인종에 따라 흡연정도가 다르다.

백인보다도 흑인의 흡연율이 더욱 높았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모든 인종에서 가장 높은 폐암률과 심장질환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인구의 32%가 흡연하고 있는데 반하여 흑인의 약 39.1%가 흡연하고 있다. 흑인여성 또한 그들의 대조되는 백인여성보다 흡연율이 높았다. 20~44세 되는 흑인여성들중 담배를 피우는 비율은 36.2%로써 같은 연령대의 백인여성 34.3%에 비교가 된다. 45세 이상이 되면 그 비율은 흑인여성이 28.1%인데 대하여 백인여성은 23.6%에 불과하다.

물론 흑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용광고로 유인물이나 선전판이 있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흡연습관이 젊어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담배를 피울 것인지 피우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결심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가정환경과 부모의 흡연 모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미국 폐협회가 많은 노력과 계획을 이와같은 가정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젊은이를 대상으로하고 있다. 우리의 최종 목표와 최우선은 담배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이와같은 목적 성취는 담배없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卍

무심코 피운담배 귀한생명 앗아간다